

현대건설 페루·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잇단 수주

페루 시장 첫 진출과 함께 수주 텃밭서도 낭보



2

1 친체로 신공항 조감도
2 사우디아라비아 '라파 변전소' 조감도

현대건설이 페루 친체로 신공항 부지정지 공사를 수주했다. 페루 시장에 진출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향후 인프라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또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라파 380kV 변전소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로 잇단 수주 낭보를 전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부지정지 사업은 약 1천582억원(1억4천380만달러) 규모의 페루 교통통신부 발주 공사로, 현지 건설사인 HV Constrastista와 조인트벤처(현대건설 55%, 약 875억원)를 구성해 현지 지사 개설 후 첫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공사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를 여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관문인 쿠스코 시내 기존 국제공항의 항공 안전 문제와 주민 소음 문제를 대체하고자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친체로시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중 부지 성토 및 연약지반 개량 패키지다.

전체 프로젝트 사업비는 5억달러(약 6천억원) 규모로 총 4km 길이의 활주로, 탑승구 13기의 터미널 1개 등으로 연간 600만명의 수용 능력을 갖춘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부지정지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연계 입찰 준비 중인 여객 터미널·활주로 건설 패키지(4억달러) 수주에도 힘을 받게 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30일 입찰 마감 후 기술과 상업 부문을 망라한 종합평가 결과 스페인, 중국, 포르투갈 등 5팀의 우수한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신공항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PMO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정부 간 계약(G2G)으로 2019년에 수주한 데 이어, 본 사업인 건설 공사까지 현대건설이 수주하게 돼 더욱 뜻깊은 수주로 평가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라파 지역 380kV 변전소 공사'는 지난 1월 올해 첫 해외수주 프로젝트인 'Hail 변전소~Al Jouf 변전소 구간 380kV 송전선 공사'에 이은 추가 수주로 올해 사우디 전력청과 총 2천82억원 규모의 2개 공사를 계약함으로써,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송·변전 분야 최강자임을 재입증했다.

아울러 라파 380kV 변전소 공사 수주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송·변전 분야에서 현지업체 및 인도업체 등의 저가 입찰 기조를 극복하고 최근 현지 정부가 강조하는 현지화 정책에 현대건설이 훌륭히 부합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과 유대감 및 신뢰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추후 신규 공사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두 건의 수주는 페루 지사 설립 후 첫 수주와 전통적 텃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추가 수주로 그동안 현대건설이 쌓아온 공사 수행 노하우와 기술력, 네트워크의 우수성을 재입증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발주처와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주로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